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무장단체의 기독교 청소년 강제 징집 심각...거부하면 치명적인 보복 당해**



콜롬비아에서 불법 무장단체들의 폭력과 미성년자 강제 징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무장단체에 합류를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 출신 청소년들이 더욱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콜롬비아를 46위로 선정하며, 게릴라 조직들이 기독교인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사업’에 반대한다고 여겨질 경우 더욱 심각한 박해를 가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특별히 위험에 처해 있다.

무장단체들은 교회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강제 징집을 반대하거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소녀들은 강제 징집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콜롬비아 국가 인권옹호관(Ombudsman’s Office)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282건의 미성년자 강제 징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 공동체 출신이었다. 무장단체의 징집 요구를 거부한 청소년들은 살해당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2월 24일, 콜롬비아 혁명군(FARC)은 엘 플라테아도에서 15세 소년을 살해했으며, 이는 무장단체들의 강압적 개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은 돈과 더 나은 삶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강제 노동과 무장 훈련을 거부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불법 무장단체들의 영향력은 초등학교까지 미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이들과 연계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강제 징집된 미성년자들은 준군사 조직이나 갱단의 일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항구도시 부에나벤투라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갱단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에르타스 아비에르타스’는 콜롬비아 기독교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심리적·영적 돌봄, 목회적 상담을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교회는 마약 중독을 포함한 각종 중독 문제에서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시편 17:6-7)

하나님, 콜롬비아에 불법 무장단체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일삼으며 강제 징집을 요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어둠의 일을 주께 고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전쟁 범죄에 동원되어 여린 손에 강제로 무기를 쥐어야 하는 상황을 주여 돌아보사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주께 피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교회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주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되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 이 땅에 주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시리아, 알아사드 지지 무장세력-과도정부 충돌로 1천여 명 사망

시리아에서 쫓겨난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지지 세력과 과도정부군의 충돌이 며칠 동안 이어져 지금까지 모두 1천 명이 넘게 숨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서 지난 6일 알아사드를 지지하는 무장세력의 매복 공격이 발생했으며, 과도정부는 알라위파가 주축인 무장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라타키아와 인근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강도 높은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교전은 사흘 만에 일단락됐지만, 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1천 명이 넘게 숨지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숨진 민간인만 7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시리아 분쟁 중 가장 큰 학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알라위파는 알아사드 전 대통령 부자가 세습 독재를 하는 동안 핵심 지지기반이 돼 줬던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이다. 아메드 알사라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은 알라위파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너무 늦기 전에 항복하라고 촉구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잠언 3:29-31)

하나님, 알아사드 지지 무장세력과 현 과도정부군 간의 충돌로 사망자가 1천여 명, 민간인 사망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등 분쟁으로 인한 혼돈 가운데 있는 시리아를 돌아보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안전보다 자신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해하며 다투는 포악한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소서. 십자가의 옳은 길을 이 땅에 보이사 세상의 값진 보석보다 귀한 주님을 전부로 만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시리아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 예멘·지부티서 이주민 선박 4척 침몰...186명 실종, 2명 사망

이주민을 태운 선박 4척이 예멘과 지부티 앞바다에서 침몰해 186명이 실종되고 2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엑스(X) 계정에서 밝혔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IOM은 6일 늦은 밤 예멘 앞바다에서 이주민 선박 2척이 전복돼 선원 2명은 구조됐고 이주민 181명, 선원 5명 등 186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한 AP통신은 지부티 앞바다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이주민 선박 2척이 뒤집혀 이주민 2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자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전했다. 지부티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뿔 지역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 중동 국가로 가려는 이주민이 주로 경유하는 국가다. 이주민은 예멘을 거쳐 걸프 국가로 가려 하지만 예멘의 환경이 열악해 다시 지부티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IOM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경로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이주민은 2,000명이 넘으며 작년에만 558명이 사망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에스겔 34:11-12)

하나님, 이주민을 태운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실종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는 이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이 아닌 주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방향하며 흩어진 양과 같은 이들을 찾아내 주소서. 그리하여 창세 전부터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온 이주민들을 통해 자신의 동족과 또 다른 이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화제로 혼란·부패 심화”...네팔서 왕정복고 요구 시위



2008년 왕정에서 공화제로 전환한 네팔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화제 도입 이후 정치가 더 부패해졌으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네팔 전역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가넨드라 샤(77) 전 국왕 복귀를 환영했다.

이날 시위를 벌인 교사 라진드라 쿨와르씨는 “국가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높으며 일자리는 없고 교육과 의료 시설은 부족하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법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정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팔 경찰은 시위대를 공항 진입로에서 차단했으며, 공항 이용객들은 걸어서 공항에 접근해야 했다.

가넨드라 전 국왕은 2001년 벌어진 네팔 왕실 학살 사건으로 갑작스레 왕위에 올랐다. 당시 술에 취한 왕세자가 총기 난사로 비렌드라 국왕과 왕비 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국왕의 동생이던 가넨드라가 국왕이 됐다.

그는 2005년 마오쩌둥주의 공산반군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로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이에 대규모 저항 운동이 벌어지면서 2006년 4월 가넨드라는 통치 권한을 직선 총리에게 위임기로 했다. 2008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전환됐고, 가넨드라도 궁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공화제로 전환된 뒤 2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3번이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과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네팔회의당(NC)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이 돌아가며 몇 번씩 총리에 오르고 있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넨드라 전 국왕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가를 구하고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는 모든 국민에게 네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왕정복고를 희망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정치학 학자인 로크 라즈 바랄 전 주인도 네팔 대사는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왕정이 반작용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라며 “왕정이 정치 불안의 근원이었던 만큼 왕정으로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이사야 32:1-2)

하나님, 왕실 학살 사건과 쿠데타를 거쳐 공화제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사라지지 않는 네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정치적 불안의 근원이 되었던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시위하는 국민들의 목마름이 주를 찾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네팔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땅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없어 마르고 곤비한 네팔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 태국 남부서 총격·폭발물 테러 공격…5명 사망

무슬림 분리주의 세력이 활동하는 태국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기·폭탄을 동원한 테러 공격이 발생해 5명이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8일 밤 태국 남부 나라티왓주 순가이 꼴록 지역에서 괴한 10여 명이 자경단 사무실에 있던 자경단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또 비슷한 시간 빠따니주 사이부리 지역에서 도로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순찰 중이던 순찰대원 1명과 현지 치안 인력 2명 등 3명이 숨졌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 인구가 많은 태국 최남단 나라티왓·빠따니·알라주와 송클라주 일부에서 무슬림 세력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해왔다. 무슬림 분리주의 투쟁은 2004년 나라티왓주 탁바이에서 무슬림 시위대 78명이 군경의 호송 도중 질식사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이후 이 지역에서 각종 테러·무장 충돌로 총 7,500여 명이 숨졌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하나님,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 분리주의 세력이 일으킨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최남단 지역을 올려드립니다. 거의 매달 크고 작은 테러와 사건을 일으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사탄의 종노릇 하는 이들에게 죄의 값은 사망임을 가르쳐 주소서. 또한 계속되는 충돌로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을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 과테말라 활화산 분화 시작…주민 3만 명에 긴급 대피령

7년 전 폭발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미 과테말라 화산이 다시 분화해, 당국이 주민들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과테말라 재난당국(CONRED)은 푸에고 화산에서 독성 기체와 화산재 분출을 감지하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위험’ 경보는 1-4단계로 나눈 경보 상 두 번째로 높은 등급(3단계)으로, 이는 “강력한 분화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앞서 해발 3천763m의 푸에고 화산에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부터 폭발 징후가 잡혔고, 화산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는 화산재가 치솟고 붉은 용암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찍혔다. 화산 일대 마을에 잿가루가 떨어지면서 마을 거주자 3만 명가량이 심야에 대피소로 이동했다. 각급 학교는 휴교했으며, 일대 도로 역시 통제됐다.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남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발로 200여 명이 숨지고 230여 명 실종될 정도로 마을이 초토화됐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시편 31:2-3)

하나님, 7년 전 강력한 화산폭발로 마을이 초토화되었던 과테말라에 화산이 다시 분화해 위험 경보가 내려져 두려움으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을 돌보시고 화산을 잠잠케 하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사람의 힘을 압도하는 재난 앞에 이 땅 영혼들의 심령을 가난케 하사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모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구하는 백성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완전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 타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디지털 성경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장에 전해진 희망



아프가니스탄의 한 시장에서 양탄자 판매상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2년 동안 그를 찾아온 이들은 작은 mp3 플레이어를 건넸다. 이 장치는 그의 언어로 된 기독교 경건 자료와 성경을 담고 있었다. 선물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양탄자 판매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슬람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박해받는 국가를 섬기는 선교단체 FMI의 느헤미야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운 희망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FMI는 키즈 포 키즈 미니스트리(Keys 4 Kids Ministries)와 협력하여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3,000개의 경건 mp3 플레이어를 배포했다.

2년간 이어진 이 프로젝트는 지역적·영적 장애물 속에서 신앙과 창의성,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다. 선교사들에게는 이 장치를 전달하는 것이 사역의 마무리지만, 이를 받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특히, 이 양탄자 판매상은 부족장으로 대화 나눈 후 가족 모두를 위해 mp3 플레이어를 요청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시장에서의 대화가 이제 하나의 부족 전체로 이어지는 문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은 경제적 불안정과 식량 부족 속에서 테러리스트 조직의 활동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뿐만 아니라 더 급진적인 파키스탄 탈레반과 IS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IS는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고 여기며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탈레반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했다. 느헤미야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mp3 플레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영적·육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테러리스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음은 결코 침묵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Mission Network News, 기도24·365본부 종합).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4,6)

하나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광채를 비추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법으로 엄격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협하지만 살아계신 창조주를 향한 목마름이 이들의 마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지켜 주시고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사 아프간의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 멕시코, 갱단 ‘비밀 화장터’ 발견

멕시코 서부의 한 대규모 목장 안에서 갱단과 연계된 비밀 화장터 추정지가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11일 멕시코 법무부·안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주 할리스코주 테우치틀란에 있는 1만㎡ 규모의 이사가레 목장에서 시신 화장용 시설과 유골, 무덤, 탄피 등이 확인됐다. 멕시코 검찰은 농장 한 편에 있는 화장터 주변으로 성인 키를 넘는 벽이 둘러쳐져 있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바닥에 수백 켤레의 신발들이 흩어져 있는 사진도 공유됐다. 엘우니베르살은 국제 마약 밀매 갱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이 신입 단원을 훈련하며 시신을 처리한 장소로 보인다고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CJNG은 악명 높은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라이벌인 범죄 집단으로 상대 조직원에 대한 살인을 일삼고, 공권력에 대해서도 잔혹한 공격을 서슴치 않으며 펜타닐·메스암페타민 등 합성마약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사편 36:1-2,9)

하나님, 멕시코의 한 대규모 목장에서 갱단과 연계된 화장터가 발견되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 범죄 조직의 심각성을 보게 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이 죄의 확장성이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열방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비밀 화장터를 만들며 잔혹한 살인을 일삼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답이오니 이들을 주의 빛 안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멕시코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더욱 전파하여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 호주, ‘이슬람혐오 사건’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

호주에서 지난 2년간 신체적 폭행, 언어적 괴롭힘, 침 뱉기, 강간 위협 등을 포함한 ‘이슬람혐오 사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13일 보도했다. ‘호주 이슬람혐오(Islamophobia in Australia)’ 5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발생한 대면 사건은 총 309건으로, 이전 보고 기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검증된 온라인 사건은 366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소녀와 여성에 관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4분의 3을 차지했으며, 소년과 남성보다 신체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3분의 1 더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사건에서 어린이들이 어머니가 목 졸림, 구타,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을 직접 보는 목격자가 됐다. 이슬람혐오 등록소(Islamophobia Register)의 전무이사인 노라 아맛 박사는 이슬람혐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무슬림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다. 이는 매우 명백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불안, 자발적 사회적 배제, 외출 공포 등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1서 3:11,14)

하나님, 지난 2년간 호주에서 이슬람 혐오 범죄가 증가하여 무슬림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주께 고합니다. 지체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섬기기보다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연약한 여성을 자녀 앞에서 공격하는 악하고 무정한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때 호주교회가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 고아와 같은 나를 돌보신 첫사랑을 기억하며 무슬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